

▶ 신간도서 - 도교육청 김성호 장학사 '선생님, 걱정 말아요'

힘들어하는 교사들의 고민 해결법

"아이들이 싸우지 않는 평화로운 교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습관이 잡혀 있지 않아요"
"공문과 업무가 많아서 힘들어요"

오늘도 대한민국 교사들은 매우 다양한 고민들을 한다. 학습 지도, 인성교육, 학부모 상담, 직장인으로서 겪는 동료 교사와의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교장, 교감선생님과의 갈등도 만만치 않다. 거기에 직장만이라면 자녀 양육 문제까지 겹쳐 이런저런 고민을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다.

'교사를 위로하는 교사'로 잘 알려진 전북도교육청 김성호 장학사는 그동안 교사들을 상담했던 내용과 독자들에게 받은 질문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펴냈다. 저자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로서 지내면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들의 질문에 따른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조언한다.

누구나 한번쯤 겪었을 어려움 질답형식으로 정리

초등학교 교사의 고민 중심으로 풀어나가나 중·고교에도 해당돼

책은 교사라면 누구나 한번쯤 겪었을 법한 어려움 44가지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학급 운영, 학생 평가, 인성 교육, 학교 안팎으로 연결되는 인간관계, 교육자로서의 성장 등 총 5가지 큰 틀로 구분하고 있다. 책은 초등학교 교사의 고민을 중심으로 풀어나가지만 중·고등학교에도 해당하는 주제가 대부분이기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라면



누구나 책을 손에 들 법하다. 그는 교장 선생님과도 갈등으로 힘들어 하며 털어놓는 한 교사에게 "저도 비

슷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존중하고 인정할 뿐이지 극복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나와 갈등을 빚고 있는 교장, 교감도 마찬가지입니다"라면서 갈등은 상호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말한다. 그가 책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교사는 교육의 꽃입니다. 교사가 스스로 행복하고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아이들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랍니다"이다. 교사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일이 잦은 즈음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만한 부분이다.

저자는 특유의 따뜻한 문체와 감동적인 사례를 통해 독자들의 공감을 자아내고 위로를 건넨다. 책을 읽다 보면 교사는 물론 학부모에게도 공감과 위로를 건네기에 충분하다. 책은 교사로서 자존감을 지키고 한 인간으로 성장하면서 교육자로서 프로그가 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전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문화이모작' 전라권 지역주관기관 선정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생활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17 문화이모작' 공모사업에서 전라권 지역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4,500만 원을 확보했다.

문화이모작 사업은 지역 고유의 마을 매개인력 발굴을 통해 지역의 문화사업 및 문화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며, 호남권·경상권·충청권·강원권의 4개 지역이 주관처로 선정됐다.

이에 호남권 지역 주관처로 선정된 전북도문화관광재단은 전라지역 예술·문화 자원의 특성을 중심으로, 교육 이후 현장과 직접 연계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교육과정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예술·마을·시장의 세 가지 키워드별 맞춤형 집중교육과정으로 설계, 각 과정별 15명씩 총 45명의 인력을 모집할 계획이다.

교육은 시민 문화의 생산주체인 지역 예술인·기획자·활동가 등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의 토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 폭을 확장시킬 방침이다.

/정해은 기자

문화소외계층 문화예술 관람 지원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신수미)는 21~22일 양일간 전북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사회적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부족했던 문화소외계층 100여명을 초청해 '뒀다 심청' 무료 관람 행사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재단의 지역사회 공헌 일환으로 진행된다.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 '뒀다 심청'은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기고 교감 할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효녀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가·무·악이 어우러진 뮤지컬 공연.

신수미 센터장은 "도민의 문화 확산과 문화의 벽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정해은 기자

완주문화재단 문화예술창작지원

'공연나눔' 등 6개 단체 선정

(재)완주문화재단(이사장 박성일)은 '2017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 공모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6개 단체는 공연나눔, 소리사랑방, 인트리 협동조합, 꼬바기(박영준, 더그루오브오디언스(공농장)협동조합, 환경미술협회 완주지부 등 이다.

올해 사업의 지원 규모는 총 3천6백만 원. 재단은 심사 순위별로 차등 지원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의 작품은 다문화 자녀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뮤지컬 '난쟁이 결혼하기', 완주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 9경을 담은 창작관소리, 삼례 비비정과 삼례문화예술촌 사이에 자리한 마천마을의 주인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아트, 전래문화 공주팔찌와 민속인형극 꼭두각시 놀음을 접목한 인형극, 폐품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아트로 '공유 도서관' 조성 등 완주 지역의 특색이 반영돼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의 심사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 5명을 비롯해 주민평가위원 22명으로 구성된 페어플레이 평가단이 참여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페어플레이 주민평가단으로 심사에 참여한 배현경(소양면) 씨는 "우리지역 완주에 이렇게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다"며 "지역 문화예술인과 주민이 함께 완주의 문화예술 발전을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뜻 깊고 감동적인 시간이었다"고 했다.

/정해은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희, 그 깊이에 빠지다' 내일 무대에

남원농악 · 송파산대놀이의 흥에 빠지러

국립민속국악원(원장 박호성)은 '희, 그 깊이에 빠지다'를 제3회 대한민국 민속악 축제 시리즈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선보인다.

23일 오후 7시30분 국립민속국악원 예음헌·예원당 펼쳐지는 공연은 연희단체 남원농악(전북무형문화재 제7·4호)과 송파산대놀이(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 무대로 꾸며진다.

남원농악은 전라도 좌도굿의 남부굿(남원·구례·순창·임실·광양 등지의 굿)을 대표하는 농악. 이는 가락이 다채로우며, 놀이동작이 세련되고 섬세하여 예술성이 높다.

농악에 참여하는 모든 치배(농악에서 타악기를 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가 상모를 쓰는 것이 특징이다. 상외·장구·징 재비들은 부포를 단 부들상모를, 소고 재비들은 창호지를 길게 오려 단 채상모를 쓴다.

산대놀이는 서울과 경기지방 중심의 탈놀음으로 양주구름·퇴계원·송파·노량진 등지에 전해왔으나, 현존하는 산대놀이는 관원놀이의 성격을 띤 양주산대놀이와 상역지에서 성행하던 탈꾼패놀이의 일종인 송파산대놀이 뿐이다. 연희형태로는 춤과 재담·소리와 동작이 결합된다.

한편 지난 2일~23일에 걸쳐 진행된 민속악축제는 정통민속공연예술의 계승·보존·발전을 위해 마련, 그간 중요무형·지방문화재를 비롯한 악·가·무·희 등 각



남원농악

대한민국 민속악축제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선보

남원농악, 다채로운 가락 놀이동작이 섬세해 예술성 높아 송파산대놀이, 탈꾼패놀이 일종

장르의 명인·명창·명무·연희단체 공연을 펼쳐 보였다.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예약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namwon.gugak.go.kr)에서 하면 된다. 문의 063)620-2328. /정해은 기자



송파산대놀이

▶▶ 공연 & 전시 ◀◀

김은하 '아름다운 여정, 나무를 바라보다' 전시회

김은하 작가는 나무의 삶이 우리 인간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무와 인간은 거칠고 거대한 자연과 사회의 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공존하기 때문이다. 작가에게 나무는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사람의 이면이 담긴 상징물로 작용한다.

작가는 이전 작업에서 관조, 즉 자연의 표정에서 정지된 공간구성을 묘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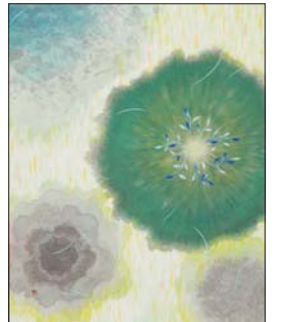
이번 '아름다운 여정, 나무를 바라보다' 전시작품은 시선을 달리해 높은 곳에서 멀찍이 바라다본 나무를 통해 유동적인 공간성을 담고자 했다.

작품에서 작가는 전통적 재료인 순지·묵·분체를 사용하여 소재의 심상을 재해석했다. 나무가 도드라지도록 공간 분할을 최소화 하고 공간의 여운을 남겼다. 위에서 내려다본 나무는 숲 소리, 바람과 햇빛, 공기와 흙·물, 나무와 풀 등을 품고 있다.

작가는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 회화과(동양화 전공)를 졸업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한국화 여성작가회, 한국화동질성전, 창조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시는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26일까지 열린다.

/정해은 기자





단풍미인쇼핑몰에서 펼쳐지는 한발 빠르게 만나는 건강한 여름!

신선함이 팡팡 터진다! <계절농산물 판매>



풍나무에서 열리는 달콤한 열매
오디



무더운 여름 기운이 쏙삭
복분자



타일지 선정 10대 슈타푸드
블루베리



달고 맛있는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

예약 및 배송
- 베리류 배송은 예약주문 순 수확 후 순차 발송, - 단풍미인씨없는 수박 1차 6. 12일, 2차 6. 29일 일괄배송

단풍미인쇼핑몰은 정음시에서 100% 품질을 보증합니다.

365일 100% 무료배송
택배비 100% 지원(정음시청)
회원가입 후 구매시 적립금 2% 지급
매주 1일 특가 할인 이벤트 진행

모든제품 100%
전국 어느 곳이나 **우체국 택배**로 **무료배송**

네이버, 다음에서 단풍미인쇼핑몰을 검색하세요!

<http://danpoongmall.jeongeup.go.kr>
문의 전화 : 080-535-4345(무료), 063-532-4345